Ⅰ 검토 배경

○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총가구의 15%인 313만 가구로 추정되며, 반려동물 양육가구 중 73%는 개를, 18%는 고양이를, 5%는 개와 고양이를 함께 키우는 것으로 추정됨[1)]

- 체계적으로 집계된 반려동물 수는 없지만, 설문조사(5,000명)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2021년 반려동물 수는 개 518만 마리, 고양이 225만 마리임[2)]

○ 반려동물의 고령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양육가구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, 반려동물보험 가입률(침투율)은 0.8%에 불과함(〈그림 Ⅰ-1〉, 〈그림 Ⅰ-2〉 참조)

-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반려견의 수명은 평균 15~20세로 증가하는 추세이며, 진료비 부담이 큰 8세 이상의 노령견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[3)]
- 설문조사에 따르면 1회 평균 진료비 지출 비용은 약 84,000원이고, 82.9%의 소비자가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함[4)]
- 2022년 10월 기준 국내 반려동물보험 계약 건수는 약 6.1만 건[5)]으로 침투율[6)]은 0.8%이며, 이는 스웨덴(40.0%), 영국(25.0%), 미국(2.5%) 등 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[7)]

○ 양육가구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, 이에 현 정부도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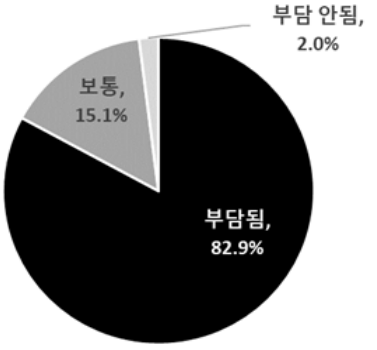
- '펫보험 활성화'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농림축산부와 금융당국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
- 2022년 11월 '1사1라이선스' 허가정책을 유연화함에 따라[8)] 기존 종합보험회사와 상품종목을 분리한 자회사 형태의 반려동물보험 특화 단종보험회사의 반려동물보험시장 진입이 허용됨
  - 반려동물은 재물로 분류되어 그간 손해보험회사만 반려동물보험 영업이 가능했으나, 규제 완화로 생명보험회사도 자회사 설립을 통한 반려동물보험시장 진출이 가능해짐

---

1) KOSIS, 인구총조사 가구부문 표본부문(2020년) 주거실태 데이터(전국 20% 표본가구를 조사하여 추정한 데이터임)
2) 농림축산식품부·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(2021)
3) 이화영·김현욱·심훈섭 외(2017)
4) 한국소비자연맹 보도자료(2021. 11. 24), "동물병원 1회 평균 진료비 84,000원, 소비자 진료비 부담 커"
5) 홍성원·전국보(2022); 2022년 10월 말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반려동물보험 가입자는 약 5.5만 명으로, 반려동물 양육인구(720만 명)의 0.8%에 불과함
6) 반려동물 수 대비 계약 건수이며, 반려동물 수는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정치인 개와 고양이 743만 마리를 이용함
7) Trupanion(2022. 11); NAPHIA(2022. 5)
8) 금융위 보도자료(2022. 11. 21), "보험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등 질적 혁신·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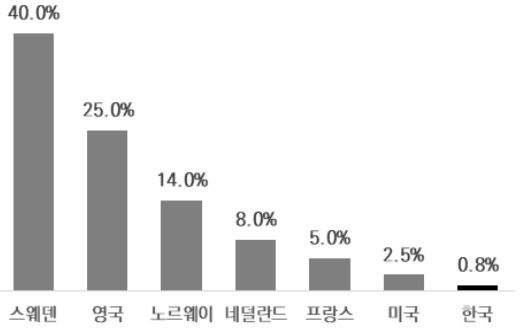
○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반려동물보험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,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의 장애 요인과 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

〈그림 Ⅰ-1〉 진료비 부담 정도



자료: 한국소비자연맹 보도자료(2021. 11. 24), "동물병원 1회 평균 진료비 84,000원, 소비자 진료비 부담 커"

〈그림 Ⅰ-2〉 반려동물보험 침투율



자료: 홍성원·전국보(2022); Trupanion(2022); NAPHIA(2022)